

서양의 눈으로 '중국 지식인'을 읽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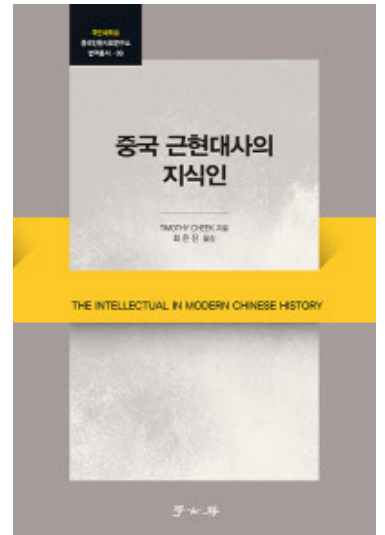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22-02-25 제11면

■ 중국 근현대사의 지식인 | 티모시 치크 지음. 최은진 옮김. 학고방 펴냄. 537쪽. 5만3천원

'중국 근현대사의 지식인'은 청일전쟁 이후 2010년대까지 중국 지식인의 역사 연구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고 있는 학술서다.

역자의 설명에 의하면 학술서인 동시에 역사 에세이이자, 주인공의 흥미로운 무대 공연을 보는 듯한 서술로 일반인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서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사와 지식인을 연구하는 캐나다 역사학자인 티모시 치크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쓴 저서 'The intellectual in modern chinese history'(2015)를 번역한 책이다.



청일전쟁 패배부터 베이징올림픽까지

100년에 걸쳐 변화한 지성 지형 제공

무대공연 보는 듯한 서술로 '흥미 유발'

중국의 지식인과 그들의 공적, 삶에 대한 구술사다. 책은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티모시 치크는 1895년 청일전쟁 패배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번영하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을 이해하는 지도이자 방법을 제공한다.

책은 100년에 걸쳐 변화하는 중국의 지성 지형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물과 사상, 주요 논쟁을 알려준다.

역자인 최은진 국민대 교수는 "이 책이 주는 통찰과 영감은 현재의 중국과 중국의 지식인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며 "이 책이 중국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소통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에는 중국 지식인의 사상지형과 담론,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 중이다. '중국 지역연구와 지식네트워크', '중국 지식지형의 형성과 변용' 등의 책을 공동으로 썼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